실제 작업 기록 발췌

# 손으로 옮기던 회의록, AI로 실제 발언까지 담다

④ 업무 생산성 개선을 위한 AI 활용

## 이번 PDF에 실제로 담은 증빙

01 제1안 기준 문단·줄바꿈 형식을 지시한 실제 프롬프트

02 제2안 이후 안건 내용 및 의결 표현 보존 요청

03 발언·의결 관련 사실 확인과 수정 요청

04 결과물을 반복 검토·재수정한 사용자 요청

### 증빙 범위 구분

확인됨: 사용자 입력 프롬프트·재검토 요청 (원본 캡처 일부 발췌)

별도 진술: 갤럭시 음성 녹음·텍스트 변환과 발언자 수기 메모

미첨부: AI 답변 전문·최종 학교 회의록·음성 전사 원본

# 02 기존 회의록을 작성 기준으로 지정

기준 문서의 형식은 보존하고 후속 안건만 편집하도록 지시

**확인된 사용 방식**

사용자가 직접 손본 제1안의 문단 구조·줄바꿈·발언자 표시를 기준으로 삼고, 제2안 이후의 편집 범위를 제한했습니다.

**원본 발췌 A | 28쪽 중 11쪽**

이번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.
**제1안까지는 내가 직접 한글(HWP)에서 문단·줄바꿈·들여쓰기·여백을 수정한 완성본이다.**
반면 제2안부터는 AI가 이전에 작성한 텍스트를 별도 편집 없이 그대로 붙여넣은 상태다.
따라서 두 부분은 문단 구성과 편집 방식이 서로 다르다.
이번 작업은 제2안 이후를 **내가 직접 수정한 제1안의 문단 구성과 최대한 동일하게 통일하는 작업**이다.
단순한 문장 교정이나 요약이 아니다.

**원본 발췌 B | 28쪽 중 23쪽**

**PDF 1쪽부터 제1안 마지막까지는 내가 직접 한글에서 수정한 최종본이므로 절대 변경하지 마라.**
먼저 제1안의 실제 문단 구성과 들여쓰기, 문단 간격, 발언자 표시 및 문장 배치를 면밀하게 분석한다.
그다음 **제2안부터 회의록 마지막까지를 제1안과 동일한 편집 스타일로 다시 작성한다.**
기존 내용을 임의로 요약하거나 삭제하지 않는다.
문단 구분은 의미 단위로 하고, 문단 내부에서는 한글이 자동으로 줄바꿈하도록 한다.
기존의 긴 문장 덩어리는 제1안처럼 읽기 좋은 여러 문단으로 분리한다.
모든 안건의 내용과 질의응답, 공식적인 처리 결과 및 기타 협의를 보존한다.
최종 검수가 끝나면 별도의 설명 없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완성본을 제공해줘.

# 03 내용 보존과 문장 구조를 동시에 관리

요약 또는 임의 삭제가 아닌 실제 회의 사실과 형식을 보존하려는 지시

**핵심 프롬프트 원리**

발언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강제 줄바꿈을 줄이고, 안건·질의응답·의결 결과를 읽기 좋은 문단으로 다듬도록 요구했습니다.

**원본 발췌 C | 28쪽 중 10쪽**

**RULE 4 — 내용 보존**
페이지 수를 줄이기 위해 실제 회의 발언을 생략하거나 요약하지 않는다.
**RULE 5 — 안건별 완결 유지**
각 안건의 제안설명, 질의응답 및 공식 마무리 구조를 유지한다.
**RULE 6 — 하나의 코드복사 블록**
완성된 회의록 전체를 하나의 코드블록으로 제공한다.
**RULE 7 — 최종 완료 후 종료**
줄바꿈, 문단 및 내용 보존 검수를 완료하면 추가적인 내용 변경 없이 작업을 종료한다.

**원본 발췌 D | 28쪽 중 26쪽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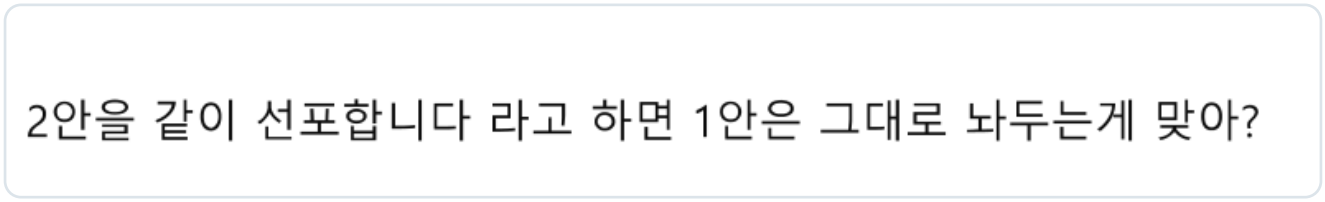
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정하라고 수정 포인트마다 코드복사버전으로 수정 할 내용을 생성부탁해. 그럼 내가 회의록 해당 포인트마다 복붙으로 수정해 놓을게.

실제 프롬프트 확인 범위: 기존 문서의 내용을 보존하면서 수정할 위치와 교체 문안을 구체적으로 요청한 사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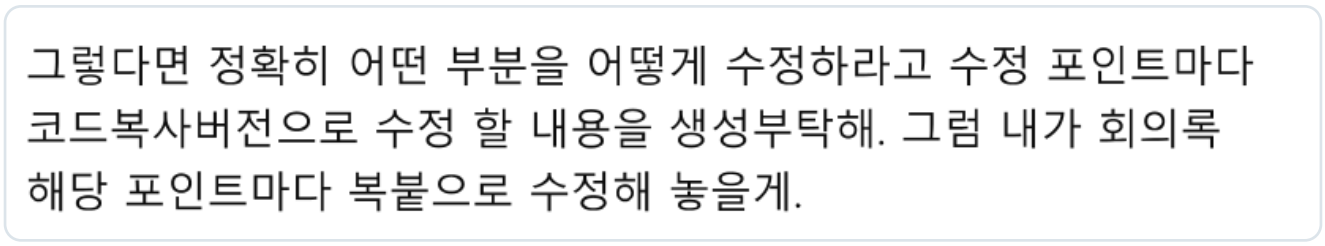
## 04 의결 표현 검토와 반복 피드백

AI가 작성한 문안을 무조건 채택하지 않고 실제 처리 방식의 적정성을 다시 질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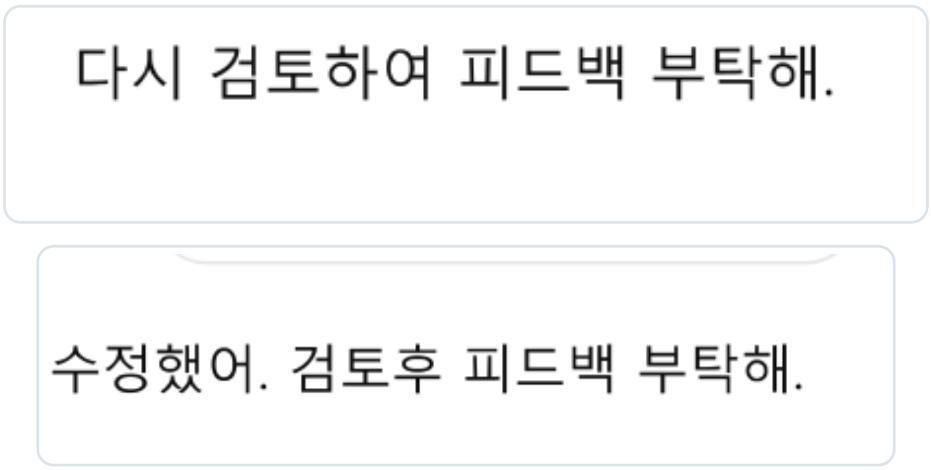
**원본 발췌 E | 28쪽 중 27쪽 · 의결 방식 확인 질문**




**원본 발췌 F | 28쪽 중 26쪽 · 수정사항 특정 요청**




**원본 발췌 G | 28쪽 중 28쪽 · 수정 후 재검토**




**정리**

사용자 지시 → AI 수정 요청 → 회의록 재검토 요청이 반복됩니다. 다만 제공된 인쇄본에는 AI 답변 본문이 빠져 있어, 수정 전후 품질 향상은 이 PDF만으로 입증하지 않습니다.

# 05 실제 활용 흐름과 증빙의 한계

원본 캡처와 신청자의 인터뷰 진술을 명확히 구분

## 이번 출품 사례에서 설명하는 실제 절차

1. **기존 회의자료·서식을 기준으로 AI 초안 작성**
   원본 캡처에서 확인
2. **갤럭시 공식 녹음 및 음성 텍스트 변환**
   신청자 인터뷰 진술
3. **발언자·발언 순서를 별도 수기 메모로 보완**
   신청자 인터뷰 진술
4. **회의록의 내용·문단·의결 표현을 AI로 재작성**
   원본 캡처에서 확인
5. **작성 자료를 반복 검토하고 수정 지시**
   원본 캡처에서 확인

## 출처 및 한계

원본: 「회의록 재구성 작성.pdf」, 총 28쪽. 이 중 공모전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용자 프롬프트만 발췌했습니다.
제외: 「회의 통보 기한 안내.pdf」는 “아직 이미지를 불러오는 중입니다”라는 인쇄 오류만 있어 증빙으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.
이 PDF는 실제 AI 입력·수정 요청의 증빙이며, 최종 회의록의 승인·업무 시간 절감·녹음 권한·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문서는 아닙니다.

외부 제출 전: 업무자료의 공개 가능 범위와 개인 식별정보를 확인하세요. 녹음·전사본 자체는 본 PDF에 수록하지 않았습니다.